

2025년 11월 04일

카이로스기도회 기도제목



11월 카이로스기도회는 최근 북한의 변화를 바로 알고 북한선교와 복음통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1. 수령숭배의 우상화 죄악이 그치게 하옵소서!

해방과 함께 공산주의를 채택한 북한은 80년 동안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 수령을 인간이 아닌 신적 존재로 둔갑시키는 데 몰두해 왔다. 정치와 교육, 군사, 행정, 경제에 이르는 모든 분야를 망라해 수령을 신격화했다. 그 결과 수령주의는 곧 하나님처럼 북한 주민을 통치하고 지배함으로써 세계 10대 종교의 반열에 올랐다. 안타깝게도 북한을 연구하는 대한민국의 학자들까지도 신정국가인북한을 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동일한 선상에 두고 바라보고 있다.

1)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외피를 쓰고 북한에서 수령을 신격화하는 죄악을 회개합니다

"너희 중에 잡다한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시81:9)"

2)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도둑질하여 김일성유일사상으로 둔갑시킨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사르며 그들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곳에 나의 진노가 쏟아져 결코 꺼지지 않으리라 하신다(대하34:25)"

3) 북한을 다른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 국가로 가르치고 배우는 대한민국의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내 백성은 지식이 부족하여 망한다 네가 지식을 거절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절하여 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네가 네 하나님의 률 법을 잊어버렸으므로 나도 너의 자녀를 잊으리라(호4:6)"

2. 최근 북한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복음 전파의 거대한 기류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 위정자들은 수령독재체제를 위해서라면 300만 이상이 굶주림에 죽어가도, 30년 이상 극심한 경제난에 가정이 깨어지고 아이들이 거리를 떠도는 고통에 허덕이고 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도리어 체제 유지를 위한 핵무력증강에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 붓고 있다. 이런 고통은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살아갈생존 방법을 찾게 하고, 다양한 형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북한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준비하고 기도해야 한다.

1) 진화하는 장마당을 통한 시장경제의 변화가 걷잡을 수 없는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 여호와의 령이 내 우에 림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시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죄 수를 풀어주고(사61:1)"

2) 북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한류 등의 변화를 통해 견고한 체제가 흔들려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으나 지금은 그가 약속하시기를 다시 한 번 내가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 것이다 하셨으니(히12:26)"

3) 외화벌이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파병되어 숨진 북한 병사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것이 북한 붕괴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에게 재 대신 화관을 주고 통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지친 심령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의의나무 곧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친히 심으신 자라 일컬어지리라(사61:3)"

3. 북한 지하교회의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흑암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수령 절대 통치가 이루어지는 북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들을 통해 북한에서 일어나 복음이 전해지고, 지하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 며, 북한의 백성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음통일로 이어질 수 있 도록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1) 공포정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의 기독교 탄압이 중지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무너진 옛터들을 다시 쌓고 이전의 폐허들을 일으키며 무너진 성읍들 곧 여러 세대 동안 내버려진 곳들을 중수할 것이며(사61:4)"

2) 두 국가론으로 복음통일의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김정은의 악한 도모가 서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람이 에브라임과 르말리야의 아들과 함께 당신을 치려고 계략을 꾸미며 말하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정복하고는 다브엘의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자 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이 서지 못하고 실현되지 못하리라(사7:5-7)"

3) 북한 젊은이들과 주민들에게 최적화된 복음전파의 컨텐츠가 제작 되어 보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어지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일군으로 부르리라 너희가 모든 나라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자랑하리라(사61:6)"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카이로스 기도회 인스타그램 지금 팔로우하기





모퉁이돌선교회는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잃은 양을 찾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 성령과 더불어 사역합니다.